

# 종립학교 80% 종교의식 강제

## 송기춘 교수 '중·고등학교 종교차별실태' 발표

“현재 중·고등학교 내 학생 종교인권 침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없는 반면 대부분의 종립학교가 강제적 종교교육 및 종교행사 참여를 강제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 종교차별 실태가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됐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월 9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만해NGO 센터에서 개최한 만해축전 학술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교수는 이날 '중·고등학교에서의 종교에 의한 차별실태와 그 개선방안' 주제 발표에서 “현행 교육체계에서 학생들은 종립학교에 강제 배정되는데 여기서도 강제적으로 종교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종교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종자원에 의뢰한 종교차별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종교차별실태조사는 당시 전국 중·고생 144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송 교수는 이날 실태조사 발표에서 현재 중·고등학교에서의 종교차별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종립학교에서의 종교차별 행위는 종립학교 학생 80% 이상이 학교 종교행사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입학 당시 종교활동 설명이 부재할뿐더러 일부 학교에서는 활동 불참에 대해 알게모르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다”며 “학생들에게 종교교과 수강의 자유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없다’란 응답이 60.9%에 달했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특히 종립학교 60% 이상이 주요 학교행사에 종교의식을 진행하지만 입학 당시 교내 종교관련 활동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 학교에서 부재했다”며 “종교교육에 대한 대체과목 개설도 극히 적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교내 종교 활동에 불만족을 표현한 응답이 34.5%로 만족한다는 응답에 2배를 넘었다”며 이어 학교 내 종교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학교교육에서의 종교적 차별 기준 마련, 종교교

### 7월 9일 만해축전 학술세미나에서

교내 종교활동 불만족 34.5%

“청소년기 종교 자유 보장 당면

학교선택권과 수업선택권 부여해야”

육 선택권 보장과 대체과목 개설, 종교의식 참석 강요 금지, 입학 후 일정 기간 내 전학 가능 제도 도입,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송 교수는 특히 “학교선택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종교교과만 가르치는 교과역시 대체과목이 복수로 개설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송 교수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종교편향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인격적 성장이 되는 청소년기에 종교자유 보장을 통한 종교적 다양성을 느끼게 할 필요가 있다”며 “다종교 사회의 조화로운 공존과 종교갈등 해소를 위해 일선학교에서의 차별은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정연복 한국기독교연구원 편집위원의 ‘종교와 파시즘, 그 역사적 고찰’, 강인철 한신대 교수 ‘민주주의와 종교정치’,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의 ‘민주주의와 종교의 사회적 기능’이 발표됐다.

이날 강인철 한신대 교수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5대종교로 불리던 종교들이 2000년대에는 3대종교로 압축됐다. 98.2%가 3대종교인 상황에서 점차 기독교가 세를 넓히고 있다”며 “주세로 보면 미래 한국사회는 단일 종교사회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 교수는 이어 “한국종교는 시민조직과 사회운동의 산실 역할을 한만큼 종교지도자의 도덕적 권위와 이웃종교에 대한 관용, 시민사회 포용 등의 전제조건이 더욱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ryunbul.com

# 이천 영월암 영월암, 학술적 조명된다

## 오는 20일 불사 방향 설정 위한 세미나 개최

경기도 대표 도농복합도시 이천의 중심도량인 영월암의 학술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이천 영월암(주지 보문)은 7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영월암과 전통문화공간의 활용 방안’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현재 영월암에서 추진 중인 불사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이천시의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는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가 맡았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지역의 대표사찰인 영월암의 역사와 인물을 통한 고증과 지역

문화거점으로서 영월암의 불사가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에 대한 로드맵을 그려보는 자리에서 눈길을 끈다.

기초 발제는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장이 ‘영월암 불사의 복원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하며 고영섭 동국대 교수가 ‘영월암의 역사와 인물’을, 손신영 동국대 강사가 ‘영월암의 조선시대 가람 배치와 복원’을, 유근자 동국대 겸임교수가 ‘영월암의 마애불상과 불교미술’을, 김현정 한국미술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영월암 소장 불화경과 변상도’를, 김유신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찰유식팀장이 ‘이천 문화크

리스트 조성과 관광 방향 모색’을 각각 주제 발표한다.

토론자로선 황인규 동국대 교수, 최성은 덕성여대 교수, 김정희 원광대 교수, 이병두 문화체육관광부 종무관 등이 참석한다.

이번 세미나에 대해 주지 보문 스님은 “세미나를 통해 영월암과 연계된 이천지역 문화크리스트 조성과 문화 탐방지로의 연계 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영월암이 지역사찰 전통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려 한다”며 “더불어 사찰의 복원불사가 종교적 기능을 확대하는 데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화거점으로 성장하는 모델을 마련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일 기자

# 정암사 법화경 판본 보물 지정

## 문화재청, 7월 10일 지정 예고

창원 정암사 ‘묘법법화경’ 판본이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7월 10일 ‘묘법법화경 권4-7’과 ‘칠태부인경수연도’ 2권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창원 정암사가 소장 중인 ‘묘법법화경 권4-7(妙法蓮華經 卷四~七)’은 불교의 대표적인 대승경전(大乘經典)으로 조선 태종 5년(1405)에 전라도 도솔산 안심사(安心社)에서 성달생(成達生, 1376-1444년)과 성계(成桂, ?-1440년) 형제가 필사한 것을 세간 무관본 전 7권 가운데 권4-7의 1책이다.

성달생은 고려 말 · 조선 전기의 무인으로 전라도관찰사 겸 병마절도사 등을 지냈다. 문무를 겸비해 당시 법화경을 비롯한 불사 편찬에 참여했다.

묘법법화경 발원문에 따르면, 태종 5년

(1405) 3월 권근(權近, 1352-1409년)이 종래의 묘법법화경 글자가 작아 독송이 어려운 까닭에 중간 크기의 글자로 필사 후 간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판각은 대화주 선사 명회(大化主 禪師 明會) 등 주도 하에 종지종 대선 자옥(總持宗 大憲 慈玉), 우산군부인 김씨(兪山郡夫人 金氏) 등이 발원 · 시주해 이뤄졌다.

문화재청은 “간행사실을 밝히는 권근의 발문을 갖추고 있어, 조선 초기의 불경 간행 방식을 알 수 있는 등 서지학(書誌學)과 불경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산광역시시립박물관이 소유하고 있는 ‘칠태부인경수연도(七太夫人 慶壽宴圖)’는 왕의 명령과 보조를 받아 70세 이상 모친을 모시고 있는 신하 7명이 1691년 8월 경수연(慶壽宴: 장수를 축하하고자 배운 잔치)을 치른 후 기념으로 제



〈묘법법화경〉 4권.

작한 것이다. 1745년 전후로 새롭게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은 당시 행사의 세밀한 표현이 돋보이는 우수한 행사기록화로 평가받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유물 2건에 대해,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 중 수렴된 각계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인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 돈황벽화 조성에 미친 한국인의 불심

리신 돈황연구원, 7월 공개...40곳 고구려 · 신라 · 백제 인물상 확인



막고굴 제61굴의 '오대산도'에 들어 있는 '신라송공사'.

불교문화의 보고(寶庫)인 중국 돈황 석굴 조성에 고구려 · 백제 유민들이 대거 참여한 사실이 밝혀졌다.

리신(李新) 돈황연구원은 7월 7일 경성 북도가 경주 우암미술관에서 개최한 '제2회 경주 실크로드 국제 학술대회'에서 “돈황 석굴 중 40곳에서 새 깃털을 꽂은 관모를 쓰고 넓은 소매 옷을 입은 한반도 사람의 모습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돈황 벽화에 고대 한국인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로 리신 연구원은 당시 동북아의

큰 흐름이었던 불교 전파와 고구려 · 백제 유민(僮民)의 돈황 이주를 들었다.

리신 연구원은 “돈황 벽화는 인접국들이 불교에 귀의하는 모습을 많이 담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대 한반도 사람들이 들어갔다. 또 백제와 고구려 멸망 이후 돈황 지역으로 쫓겨 온 유민이 이주했고, 이들이 석굴 조성과 불교 신앙 활동에 참여하면서 석굴 벽화에도 표현됐다”고 밝혔다.

당시 돈황 지역에는 중국 성씨가 아닌 구(具), 김(金), 채(菜) 등의 성씨 기록이 남

아 있어 한반도에서 건너온 유민이 대거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리신 연구원은 “유민들은 장기 거주하여 돈황 시민 중 한 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는 조우관과 넓은 소매 옷을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한반도의 독특한 복식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돈황 벽화 중 조우관을 쓴 인물상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왕릉벽화, 남당시대 변객입조도(藩客入朝圖)에 나오는 한반도 인물상과 용모, 동작, 관모, 복식이 비슷하다. 노덕현 기자

# 동국대 불교학술원, <해심밀경소> 3권 출간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7월 10일 신라 유식학(唯識學)의 대변자로 평가받는 원측(613~696) 스님의 <해심밀경소(解深密經疏)> 3권을 출간했다.

해심밀경소 출간은 불교기록유산 아카이브 구축(ABC) 사업 중 ‘한국불경전서 역사사업’으로 진행됐다.

총 8품 가운데 ‘제1 서품’, ‘제2 승의 제삼품’, ‘제3 심의삼품’, ‘제4 일체법삼품’이 1차로 출간됐다.

해심밀경소는 유가행과의 소의경전인 <해심밀경>에 대한 주석서로 원측의 저술 중 가장 중요한 대작으로 꼽힌다.

노덕현 기자

# 일심 사상'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한자경 이화여대 교수, 한마음과학원 2013학술심포지엄서

안양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은 7월 6일 한마음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2013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일심사상,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은정희 前서울대 교수의 ‘원효의 일심사상’, 김원명 한국외대 교수의 ‘일심사상의 연구현황’, 한자경 이화여대 교수의 ‘일심사상의 연구방향과 과제’, 소광섭 서울대 융합기술원 박사의 ‘현대물리학과 일심사상’이 발표됐다.

이날 한자경 이화여대 교수는 “일심사상은 불교를 넘어 동체의식, 평등주의적

의식이 반영된 한국인의 철학”이라며 “종교적 영역을 넘어 한국인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현하는데 일심사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한국인은 누구나 ‘하연된다’는 생각, 누구나 일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끝까지 분발하고 분투한다. 이밖에 인정이 많고 의리가 넘치는 행위들도 그 삼층마음인 일심으로 귀결된다는 바탕이 있기에 가능하다”며 “환경 파괴 등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진정한 사해동포 주의로 나아가는데 일심사상이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좋은 소리는 스피커와 마이크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장 : 김민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파워덱스 앰프      스테레오 앰프      •高音質 무선마이크

## 전국 법당의 앰프 신규설치 및 교체 전문, 사용중인 앰프, 스피커의 소리보완 클리닉!!

신제품!! 고급 앰프케이스 출시  
•가격 : 250,000원 (배송료 포함)

•법당전문 스피커

•일반마이크 aV-620      •무선 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마이크      •고성능 탁상마이크

◆특징: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민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 Hwalbup Apitherapy Correct Master

## 벌(蜂) 침관리사

일침 이구 삼약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

### 벌침(蜂)관리사란?

벌(蜂)공무리에 있는 침을 손과 핀셋으로 압통점 및 경혈에 직접과 자침을 하여 일침이구삼약(침/뜸/약)의 동시 효과로 밸런스가 무너진 몸의 균형을 신속히 회복되도록 하는 방법으로써 활법 교정술과 접목되면, 몸의 자연 치유력이 평생 유지되어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벌침관리 전문가다.

###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격 과정	교육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른 자세와 근육론 / 경혈론 / 증상론</li> <li>벌(蜂)침의 침추신경 / 경락의 활용법</li> <li>척추와 아시할 찾기 / 주의사항</li> <li>활법교정과 벌침의 직·자침 실기</li> <li>* 특강 :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기간 : 6주과정 (토) 오후 1시 ~ 5시</li> </ul>

▶ 특별강사 : KBS / MBC출연 / 활법창시자 직강  
▶ 대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 평생건강에 관심과 질만으로 고생하는 자  
▶ 특 전 : 봉산 및 가족(봉침)용 양봉기술 전수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의      021393-5111 / 010-3685-1730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